투데이 칼럼

우량종자 생산은 협치로부터

이경일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장

때 이른 폭염이다. 서울은 지난 5월19일 5월 중순 기온으로는 84년만에 최고 더운 31.9도를 기록했다. 이러한 폭염은 종자생산에도 영향을 주었다.

동계작물인 영양보리의 경우 수확일이 평년보다 일주일 앞당겨 졌으나 고온으로 종자생장이 일찍 정지됨에 따라 종자무게가 줄어 10a(300평)당 생산량도 평년의 70%수준으로 감소되었다.

폭염과 함께 농업인의 가슴도 타들어 가는 것이다.

기상이변이 상시화 되고 있다. 기상이변에 대응하여 우량종자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마도 과학영농, 기술농업이 해법이 될 것이다.

기술의 발전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발명왕으로 유명한 에디슨이 설립한 회사 GE는 'Imagination at work' 즉 새로운 발명을 위한 상상력을 강조한 반면 Apple의 CEO 스티브 잡스는 'Think different' 즉 새로운 사고를 위한 창조성을 강조하고 있다.

스마트 폰은 컴퓨터, 핸드폰, 카메라 등 기존의 발명품을 결합하는 새로운 사고로 태어난 것이다.

기상이변에 대응하여 우량종자를 생산하기 위해서도 두 가지 접근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기상이변에 대응한 신품종개발과 기존 품종에 대한 재배기술의 혁신이 그 것이다.

신품종 개발은 10여년의 기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는 재배기술 혁신을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은 국립식량과학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채종단지 회원들과의 협치를 통해 우량종자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동 워크숍 개최, 채종단지 합동점검, 공동 육묘시험 등 각각의 종자 생산기관이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의 교류를 통해 최적의 재배기술을 도출해 이를 적용하는데 힘을 쓰고 있다.

도처에 흩어져 있는 자원을 결합하여 최선의 결과를 산출하는 것, 바로 이것이 협치, 정부 3.0의 정신이자 스티브 잡스가 강조한 'Think different'의 적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전라북도는 동진강, 만경강이 흐르고, 지평선이 보이는 우리나라 최대의 곡창지대인 호남평야가 있는 지역이다.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은 전북 농업인들이 파종하는 종자량 기준으로 '16년에는 벼의 경우 67%, 보리·밀의 경우 63%, 콩의 경우 52%를 공급하고 있다. 정부가 공급하는 종자는 농업인이 자가 채종하는 종자에 비해 생산성 측면에서 6%~65%로 높은 걸로 알려지고 있다.

농업인이 자가 채종하는 종자를 정부가 공급하는 종자로 대체하기만해도 농업생산성이 최소 6%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현재 3%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아무쪼록 국립종자원 전북지원, 국립식량과학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과의 협치를 통해 우량종자 생산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호남평야가 풍요로운 황금들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사 설

전북 혁신도시 공공기관 현황 주목해야

전북도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주목해야 할 것이 많다. 그 중의 하나가 혁신도시에 대해서이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직원 현황을 보니 답답한 게 있다. 얼른 생각할 때는 전북 혁신도시가 장차 지역발전에 큰 보탬이 되리라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뜻밖의 놀라움을 여기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전북 혁신도시로 공공기관들이 속속 입주하면 일자리도 늘고 세수입도 늘고 지역 발전도 있으리라 여겼는데 그게 아직은 짧은 생각이었던 것이다. 그동안 직원들이 품고 있던 속내를 들여다보니 참담하다. 전북 지역에서 근무하느니 차라리 퇴직하는 게 낫다고 했으니 말이다. 실제로 1642명중에서 469명이 퇴직을 해버렸으니 여간 곤혹스러운 게 아니다. 요즘 취직이 극히 어려운 때인데도 네 명에 한 명꼴로 퇴직했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전북도는 혁신도시가 지금의 자리에 조성되기까지의 과정을 다시 상기해야 한다. 그동안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그 얼마나 애태우며 힘을 쏟았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처음에는 터덕거리기도 했지만 한 때는 전북 혁신도시가 전국의 모범 사례가 될 만큼 진척이 빠른 때도 있었다. 혁신도시의 아파트 건 만해도 입주비와 관련해 이런저런 잡음이 있었지만 무난히 넘어갔고 민간인의 호응도도 매우 좋은 편이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혁신도시가 고민거리를 숙제로 남기고 있다.

전북도는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관련하여 신경을 더 써야 한다. 교육 여건이며 정주 여건이며 교통 여건 등 혁신도시로 이주한 이들의 입장에서 제반 사항을 살펴야 한다. 이쪽만 좋으면 좋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단견이다. 그들은 수도권 거주의 여러 이익을 버리고 내려왔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지역 인재 채용 비율도 전국에서 다섯 번째에 그치고 있다는데 그것은 그만큼 혁신도시 관계자들이 어려운 게 아직도 많기에 그럴 것이다.

새만금 개발청, 중심을 지켜야 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중심을 지켜야 한다. 그게 도리이다. 새만금개발청이 최근에 보여준 모습은 도민들이 볼 때 여간 불쾌한 게 아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들은 새만금개발청이 설립된 취지에서 벗어나는 언행을 삼가야 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름 그대로 새만금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개발에만 신경을 써야 한다. 새만금개발청이 그 이름값을 못하고 엉뚱한 데 신경을 쓰면 곤란하다.

도민들은 새만금 사업이 생각보다 지지부진한 것에 많이 속 상해하고 있다. 이것을 그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할 새만금 개발청이 도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은 언행을 보인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삼성이 새만금에 조 단위의 투자를 하기로 해놓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입을 다물고 있는 판에 새만금개발청이 그에 대응하지는 못할망정 누구의 편을 들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물론 새만금 개발청이 전북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새만금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래도 이번에 새만금개발청이 전북도와 도민들의 정서에 반하여 삼성 측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잘못이다. 그게 삼성 측의 환심을 사는 가운데 장래를 내다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그랬다 해도 그렇다. 전북도와 도민들은 속은 기분인데다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다.

전북도와 도민들이 생각할 때 삼성의 투자는 진즉에 물 건너갔다. 그에 대해 진상 파악이 반드시 있어야 할 터이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데 새만금개발청은 확실한 것이 아니면 말을 조심해야 한다. 전북의 지역 사회는 지금 분노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새만금개발청더러 삼성의 대변자냐고 다그치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 그 이유를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들이 곱씹어 헤아려주었으면 하는 바이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독자제언

국가유공자, 마땅히 기억하고 예우해야

'6월' 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동족상잔의 비극을 떠올린다. 지금까지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은 탓이다.

우리가 아는 6.25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남침으로 개시되어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성립되기까지 만 3년 1개월 2일간 계속된 전쟁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정권이 남북한 내부의 민족갈등 속에서 한반도를 무력으로 통일하려고 구상한데서 비롯되어 공산주의국가 수립을 목표로 하여 개시된 전쟁이었다.

이 전쟁기간 동안 전 국토의 80%에 달하는 지역에서 전투를 하였다. 인명피해만 해도, 한국군(경찰 포함) 63만 명, 유엔군 15만 명을 포함 78만 명이 전사·전상·실종되었고, 북한군 80만 명, 중공군 123만 명 등 약 203만 명의 손실이 생겨 군인피해만 총 281만 명에 달하였다.

또한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은 가족이 없었다. 스무 살도 채 되지 않은 어린 나이에서부터, 갓 가정을 이룬 새신랑에 이르기까지 총탄과 포화가 빗발치는 전쟁터에 나가, 우리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싸우셨다.

어떤 분은 전쟁 중에 부상을 입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전쟁에 나간 지 하루가 채 되지 않아 전사하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전·사상자의 혈육과 이산가족 등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6.25전쟁의 연장선상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이에 우리 국가보훈처에서는 정부 3.0의 일환으로 6.25전쟁에 참전하신 분들을 발굴하여 등록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이 있음에도 예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정부 주도의 국가유공자 발굴 및 등록을 추진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권익보호에 힘쓰고 있다.

국가유공자,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지금에 이르도록 발전할 수 있었고,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꽃이 활짝 펼 수 있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이 절로 든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한 번쯤은 그분들의 희생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달이 되었으면 한다. 지금의 우리를, 대한민국을 있게 해준 그분들의 희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남지영 전북서부보훈지청 보상과

독자제언

기초질서 준수 나부터 실천해야

기초질서 지키기는 우리 생활 주변의 작은 무질서 행위를 바로잡아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구성원 사이에 맺은 약속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기초질서를 어기는 행동은 자신의 피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을 괴롭히게 되며 나아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불법, 무질서, 편법, 탈법주의 등을 야기 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법과 질서를 지키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준법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주의와 만연한 이기주의로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은 언젠가부터 우리에게 깊숙이 파고들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때론 사회적 약속을 어기는 행위로 여겨지지 않고 당연한 듯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다.

아무 곳에나 쓰레기를 버린다거나 무단횡단, 불법 주·정차 등 우리 모두가 익히 잘 알고는 있지만 아무렇지 않게 접하고 이제는 익숙해져버린 것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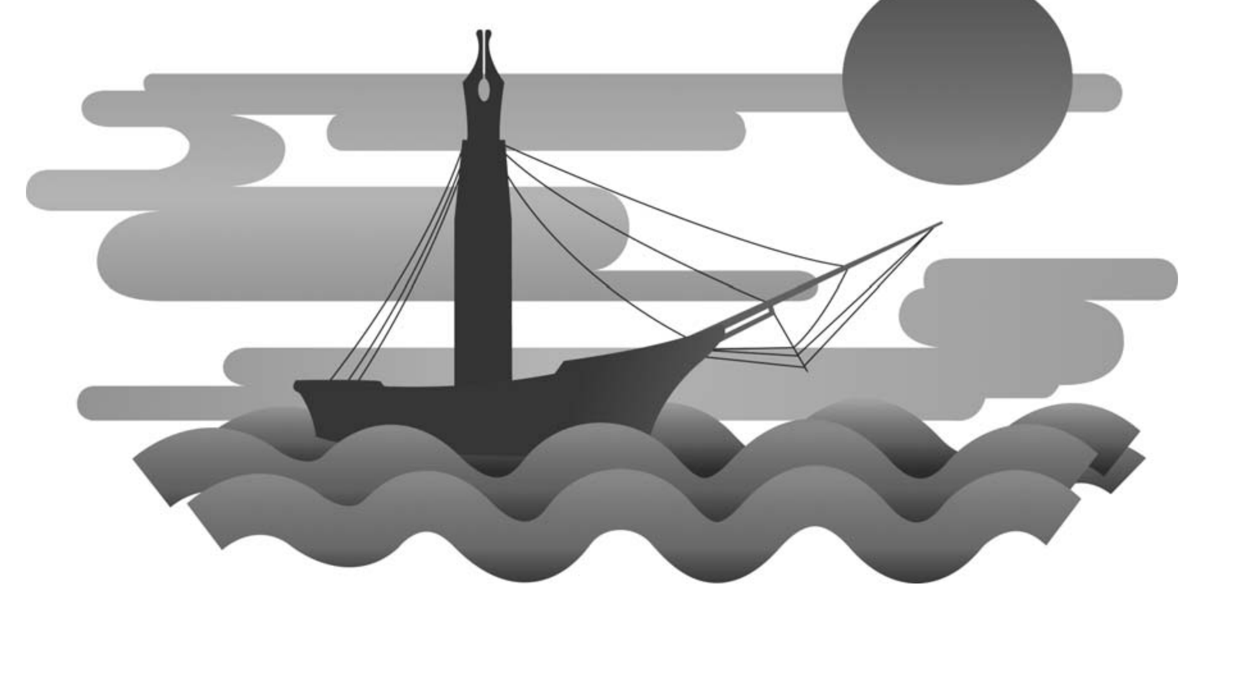
이러한 무의식속 무질서를 우리사회가 바로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모두 스스로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며 우선 우리 사회에 침투한 생활 질서 무시에 대해 개선도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기초질서를 지킨다는 것은 그 나라 국민의 법질서 준수의식의 척도이며 민주주의 법치국가의 가장 기초적인 책임과 의무일 것이다.

이러한 약속은 결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가 보지 않아도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국민 모두에 대한 약속이며 생활주변에서의 작은 질서 위반이 각종 범죄와 사회의 무질서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국가의 법질서가 흐트러진다는 것을 명심하여 기초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 사회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길일 것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 288-9700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